# SIMPAC STORY

SIMPAC STORY 2017 NEW YEAR VOL.37







# SIMPAC STORY

SIMPAC STORY 2017 NEW YEAR VOL.37



- O4 SIMPAC News SIMPAC소식
- O8 SIMPAC Theme A첫 SIMPAC의 빛나는 순간들



- 12 Best SIMPAC 人 2017년 신년사
- SIMPAC Interview
  (주)SIMPAC Bernd Moritz 수석부사장
- SIMPAC is··· 현재 SIMPAC의 시간은 몇 시 몇 분인가요?



- 20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SIMPAC R&D부문
- 32 기획칼럼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방법 (1)
- 36 차 한잔 나누며 Talk Talk 2년 차들의 솔직담백 Work story



통권 37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17년 3월 10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02-3780-4907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및 편집 디자인 큐더스다임 02-6011-2000

#### 사보 담당자

#### (주)SIMPAC홀딩스

이웅기 대리

02-3780-4923 wklee@simpac.co.kr

손인성 사원

032-590-2023 isson@simpac.co.kr

#### (주)SIMPAC

**김선일 사원** 

032-510-0024 silkim@simpac.co.kr

#### (주)SIMPAC인더스트리

#### 민혜림 사원

032-590-8812 hrmin@simpac.co.kr

#### (주)SIMPAC메탈로이

#### 선광규 대리

054-271-8724 kgsun@simpac.co.kr

#### 이준기 대리

041-360-0122 jklee@simpac.co.kr

#### (주)SIMPAC산기

#### 김현수 과장

062-717-7214 kimhs@simpac.co.kr



- 42 SIMPAC人의 제안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남인호 사원
- 46 아빠와 함께 출발선에 선 내 아이에게
- 48 인사소식 SIMPAC의 새로운 얼굴들



- 52 편지 왔습니다 SIMPAC인이 전하는 마음
- 54 사진으로 말해요 Photo Diary
- 35 광고 SIMPAC메탈로이

#### SIMPAC News

SIMPAC 그룹

#### SIMPAC그룹 계열사, 2017년 시무식 실시

SIMPAC그룹 각 계열사에서는 1월 2일, 새해를 맞이하여 시무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행사는 지난 한 해 회사를 위해 활약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을 비롯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에 대한 상패 수여를 통해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이룬 성과에 대해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정유년 새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며 회사의 건승을 기원하였다.







#### 기부행사

(주)SIMPAC은 2016년 12월 20일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부평구청을 방문하여 홍미영 부평구청 장에게 성금 1천만원을 전달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 28일에는, 해성보육원(인천광역시 남구 소재)을 찾아 지역사회 후원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주)SIMPAC의 심웅섭 전무이시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연말 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 겠다" 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 임금단체협상

(주)SIMPAC은 2016년 11월 30일,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였다. (주)SIMPAC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회사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노사는 '2016년도임금협상 위임'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상과 관련하여 문재식노조위원장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하였으며, 더욱 강한 회사가 되어 임직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소감을 밝혔다.

이에 심웅섭 전무이사도 "노조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회사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주)SIMPAC은 1987년 노조 설립이래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 신입사원 계열사 투어

(주)SIMPAC은 지난 2016년 11월 18~19일과 23일, 신규입사자들과 함께 계열사인 SIMPAC메탈로이 본사 및 당진공장, SIMPAC인더스트리와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를 방문하였다.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11월 14일 입사한 14명이 참여한 이번 투어는 신입사원이 각 계열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룹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해하도록 기획되었다. 투어에 참여한 신입사원들은 각 계열사 관계자들의 설명 하나하나에 귀기울이며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보는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투어에 참여한 신입사원 주정현(여, 26세, 경영지원팀 수습)씨는 "처음 보는 공장설비들을 보며 계열사들이 SIMPAC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추운 날씨에도 웃는 얼굴로 맞아주신 계열사분들, 일정이 끝난 후 동기들과 즐겁게 친목을 다졌던 것들 모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이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SIMPAC News



#### QSS 개선활동 2차년도 Kick-off

지난해 12월 27일 본사 1층 강당에서 QSS 개선활동 2차년도 Kick-off가 열렸다. 1차년도 QSS 개선활동을 통해 벨트클리너를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관련 특허도 진행 중에 있는 등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날 다시 시작하는 QSS 개선활동을 통해 '원가절감' 및 '분진 제로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는 힘차게 노력 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 QSS 개선활동 지원에 나서는 POSCO 기술개발센터 양현모 마스터도 1차년도에 보여준 직원들의 개선의지라면 2차년도 역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정년퇴임 및 공장장 이·취임식

지난해 12월 29일 본사 1층 강당에서 2016년 정년퇴임식이 있었다. 이어서 1월 2일 당진공장에서도 2016년 정년퇴직자 공로 패 수여식을 가졌다. 정년퇴임식 행사에서 송효석 사장은 다들 20년 이상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 분들로서 이분들의 노력과 희생을 비탕으로 회사는 성장·발전하였으며, 많은 후배들이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바로 이 분들이라며, 그동안의 노고를 감사드리며 정년퇴임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이어 포항1공장 공장장 이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임하는 채상갑 공장장은 1984년 회사에 입사하여 약 32년 가량 근무하면서 사원부터 임원까지 거치며 회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한 분으로 많은 직원들이 더 이상함께 하지 못함을 아쉬워 했다. 이어 취임하는 박승배 공장장은 1994년 회사에 입사해 합금철생산팀장을 거치며 당진공장 건설 TFT와 당진공장 생산팀장을 역임하며, 명실공히 우리회사

합금철생산의 최고 엔지니어로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 꼭 필요한 공장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취임사에서도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타파할 것은 기술개발을 비탕으로 한 원가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항상이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

지난 1월 18일 포항시청 9층 시장실에서 '포항시 장학회' 장학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였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매년 1,000만원씩 장학금을 기탁하는 것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성실한 회사경영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납세만으로도 우리 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SIMPAC 메탈로이에서 지역 인재들을 위해 귀중한 장학금을 기탁해 주어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말에 SIMPAC메탈로이 송효석 사장은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기업이 지역사회에 해야 할 사회적 책임마저 포기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기업 활동으로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답하였다.



## O7. SIMPAC STORY

#### 전 직원 POSCO Global 안전센터 방문



지난 시무식 때 송효석 사장이 강조한 재해 없는 일터, 안전한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2월 9일 부터 전 직원을 4개조로 나눠 POSCO Global 안젠센터 방문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감전, 협착, 낙하재해와 관련한 4D 영상관람과 열·연기 및 생활안전 체험, 심폐소생을 교육 등 작업현장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이날 방문한 직원들은 교재에서만 보던

상황들을 4D 영상과 각종 체험을 통해 경험하니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으며, 직접 경험한 것을 현장이나 일상 생활에서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 SIMPAC홀딩스, 적십자특별회비 1,000만원 서구청전달



인천광역시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 업단지에 소재한 프레스 금속조립 구 조재 전문생산 업체인 SIMPAC홀딩 스(대표이사 최진식)는 지난 12월 26 일 서구청에서 지역 이웃돕기를 위한 적십자특별회비 1,000만원을 서구청 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강범석 서 구청장, SIMPAC홀딩스 심웅섭 전무 이사 및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SIMPAC홀딩스는 그 동안 사회복지시 설이나 지역 사회를 위하여 매년 이웃 돕기 성금 및 적십자특별회비를 기부

하는 등 지역 내 소외된 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불경기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성금을 기부해 주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구청에서 기업인이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심웅섭 전무이사는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열심히 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 등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전달된 적십자특별회비는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08.**2017
NEW YEAR

09. SIMPAC STORY

SIMPAC

2006년 SIMPAC 메탈로이 합류

## 열정과 신념으로 걸어온 세월, 15년의 역사

2016년, SIMPAC그룹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열정과 노력의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끊임없이 달려온 SIMPAC그룹. 지나온 SIMPAC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번 신년호에서는 SIMPAC의 발자취를 따라가보았습니다.

SIMPAC의 빛나는 순간을 담은 15년의 흔적. 다시금 곱씹어 보는 시간으로, 역사의 순간들을 재조명합니다.



(주)SIMPAC 인수 위한 주식공모 신문공고

2001-2016 SIMPΔC



SV4P-2000 출시



SIMPAC메탈 전경



SIMPAC인더스트리 전경

2014년 SIMPAC인더스트리 출범식



2003년 SIMPAC홀딩스 ENG 계열사 편입



2015년 SIMPAC산기 인수



SIMPAC산기 공장내부





10.

2017 NEW YEAR

## SIMPAC, 새로운 성공의 길을 이어가다

성공의 길, 그 중간 지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2017년, SIMPAC은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첫 마음을 일깨웠을 SIMPAC. 꿋꿋히 초심을 지켜가며, 또 한 번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성공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SIMPAC은 다시 한 번 달려갑니다. 오늘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내일을 향해.

(주)SIMPAC 시무식



(주)SIMPAC 시무식



(주)SIMPAC 장기근속자 표창패 수여

11. SIMPAC STORY



장기근속자 표창패

(주)SIMPAC 시무식















13. SIMPAC STORY

지난 한해는 나라 안팎으로 너무도 어수선한 나날이 지속되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만, 우리 임직원들은 어느 해보다도 도전적이며 혁신적으로 업무에 임해, 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흑자를 기록한 의미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에 대한 매우 비관적인 견해를 임직원 여러분께 말씀 드려 왔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원천기술 부재, 무사 안일의 자세, 말뿐인 혁신, 부족한 마인드의 변화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바꾸어야할 운명에 대해 여러 해 동안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부정보단 긍정의 길로, 안된다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해에는 함께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는 늘 승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는 법입니다.

프레스 사업을 하는 그룹의 주력사업체인 (주)SIMPAC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익률도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평균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런 실적의 저변에는 임직원의 남다른 노력들이 뒷받침 되어주었고, 일하는 방법의 개선과 변화가 따라주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변화가 큰 동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계전문 엔지니어가 상당수준 전기엔지니어링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전기직 엔지니어는 연동기술과 자동화에 따른 업무에 더 많은 능력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이바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의 이전현상이며, 향후에도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구매 및 물류팀의 활약도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새해에는 자동회를 담당하는 부서와 새로운 외주부문에서의 커다란 혁신도 기대됩니다. 연구소 기능도 단순 설계부서가 아니라, 그 간 부족한 표준화 및 개선작업에 대해 수많은 과제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레스 사업은 신년에 드디어 독일에 제2연구소 설립과 유럽에서 선진사로의 해외영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우리의 원천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유럽계, 미국계 고객에 대한 접근 통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합금철 사업부와 인더스트리, 산기 또한 기본자세를 견지하고, 지난 수년간 SIMPAC그룹이 추구해왔던 가치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수익성 제고, 시장확대, 협업능력의 확대 등 우직하게 우리의 길을 끊임없이 번뜩이는 지혜와 혁신의 눈으로 나아가면, 국내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할 것이고 국제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SIMPAC그룹 내 모든 사업부는 최고의 기술기업, 고객에겐 최고의 신뢰 기업, 그리고 여러 임직원에게는 더없이 따스한 삶의 동반자이자 자기발전의 허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 말에는 더 나은 성과로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더 따스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새해 임직원 가족들의 건강과 행운을 함께 기원 합니다.

> 2017년 새해 아침 SIMPAC그룹 회장 최 진 식

사랑하는 SIMPAC메탈로이 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길 희망합니다.



대망의 2017년은 포항과 당진이 그 동안 같은 듯 다른 모습으로 운영해 온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뜻 깊은 한 해입니다. 사상 유래 없는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 많은 악재 속에서 둘이 아닌 하나로 그 힘을 모아 더 큰 힘을 내고,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큰 결심을 한 해입니다.

두 개의 회사를 하나로 합친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여준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을 다해준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염려는 접어두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읍시다.

마침 올 해가 닭의 해입니다. 어둠 속에서 새벽을 알리는 우렁찬 닭 울음소리가 새 아침을 열듯 올 해는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SIMPAC메탈로이의 시작을 닭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 해는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붉다'는 중의적인 의미로 '밝다'와 '총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총명한 닭의 해'에 모두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여 밝은 한 해가 될 수 있게 합시다.

지난 해 신년사에서 '생존'을 강조 했습니다. 올 해 역시 '생존'이 중요한 화두지만 '생존'은 바탕에 두고, '화합'과 '상생'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포항과 당진이 둘이 아닌 하나로 합쳐진 상황에서 서로간 지나친 경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조직 내에서 지나친 경쟁은 서로를 갉아 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보고 배워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외부의 경쟁자들이지 우리 동료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두인 '상생'은 거창한 것 만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동료가 수월하고,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회사일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마치고, 내 건강과 옆 사람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결심하는 등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모든 것이 '상생'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삶을 바꾸고, 조직을 변화시키고, 회사를 발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해 역시 '생존'을 위한 '원가절감', '기술경쟁력 강화', '개인 역량개발'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주위 동료들의 안전까지도 함께 지켜 나기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해 전체의 '생존'을 위해 포항에 전기로 2기의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동고동락하던 동료들 몇몇을 집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때 일수록 하나로 의견을 모으고,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시련은 좌절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난해는 우리도 힘들었고 세상도 힘들었던 한 해 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된 2017년은 '화합'을 이뤄 '상생'할 수 있는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것으로 신년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5. SIMPAC STORY

SIMPAC인더스트리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봄에 자리를 내어주듯이, 묵은해가 새해의 기운에 작별을 고하듯이 2017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은 작년의 것으로, 새해의 희망찬 기운 만이 여러분의 가슴을 오롯이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16년, SIMPAC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두가함께 이뤄낸 창립 15주년이기에 모든 SIMPAC인들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창립 15주년 기념 직원 격려 해외여행으로 인해 사기 진작된 SIMPAC인더스트리를 느낄 수 있었던 뜻 깊은 2016년이었습니다.

이 사기 진작된 기세를 몰아 다가온 새해는 더욱 힘차게 뛰어오를 때입니다. 비록 지난해와 다를 것 없는 전망일지라도 여타 매체의 시각과 전망에 반(反)하여 좌절하지 않고 함께 힘차게 뛰어올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임직원 여러분! 새해는 어려운 시장 속에서의 오늘의 부진에서 벗어나 날개를 단 듯 훨훨 날아 오르는 해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낙수천석(落水穿石)'이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시장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임직원 여러분 모두 낙수천석의 의지와 열정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 SIMPAC인더스트리의 그래프가 가파른 상승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 새해의 처음, 그 시작을 열었습니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닭의 울음이 새벽을 알리듯 새로운 희망을 갖고 우리의 매일, 우리의 내일을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베른트 모리츠 (Bernd Moritz)

#### 경력사항

2017 - 현재 : SIMPAC INC. Seoul/Korea

2007 - 2017 : SCHULER Pressen GmbH Weingarten (안드리츠 그룹(Andritz Group) 산하의 주식회사) 프로젝트 기획, 부서 분할 및 프로밍 시스템 (Froming System) 총괄

- 신규 "서보-드라이브 기술-SDT"와 관련된 고성능 Front-of-Line 및 End-of-Line 시스템 홍보를 위한 글로벌 제품관리 및 기술영업 담당
- 프레스공장 전문컨설팅 및 글로벌 TIER 지원 -주로 자동차 및 가정용품 고객사
- OEE-최적화 : 가용성 생산성 품질
- 글로벌 프로젝트 견적 및 계약비용산정 총괄
- 기술프로젝트엔지니어링 총괄

1991 - 2007: Müller - Weingarten AG

## SIMPAC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다

2017년 SIMPAC의 힘찬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길을 Bernd Moritz 수석부사장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수석부사장의 경영철학, 앞으로 SIMPA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IMPAC과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된 Bernd Moritz
수석부사장 인터뷰를 전합니다.

## 1 처음 본 SIMPAC, 첫인상은 어떠셨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Schuler와 Müller-Weingarten에서 25년동안 재직했습니다. 두 업체 모두 최고의 프레스 제조업체로 널리 알려져있지만 가격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도 유명하지요. 수년간 저는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가격정책을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의 경쟁사들을 분석해왔습니다. SIMPAC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저는 SIMPAC에게 시장 내 최고의 프레스 제조업체를 따라잡을 수 있는 큰 기회가 있으며, 더 나아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SIMPAC의 제조공정은 상당히 준수한 수준으로, 특히 용접이나 기어가 그렇습니다. 프로젝트의 리드타임이 짧고 현대적인 설계방식(3D-Solide Edge)을 활용한다는 것은 SIMPAC이 그만큼 역동적이고 잘 조직된 기업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게 인상적이었고, SIMPAC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부문 등에서 일하는 많은 일선 직원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최진식 회장님을 만나면서 최종적으로 SIMPAC의 일원이 되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우호적이고 정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분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필사적인 헌신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 문화에 대해 매우 편안한 느낌을 들게 해주었습니다. 최진식 회장님이 제시하는 현실지항적인 비전과 SIMPAC이 업계 내에서 쌓아온 전문성은 우리가 성공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저도 이같은 성공에 기여하고 가능한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 17. SIMPAC

# SIMPAC이 향후 성장하는데 SIMPAC Europe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럽 TIER시장과 OEM 고객들은 까다로운 요구조건과 보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탓에 분명 가장 복잡한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SIMPAC은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럽시장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임에 반해, 유럽 현지 기업들은 EU에 속해있으며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Schuler 출신의 많은 전문가들과 Müller-Weingarten에서 활동했던 엔지 니어들로 구성된 SIMPAC Europe은 SIMPAC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성장해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SIMPAC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친 방대한 고객 네트워크와 오랜 파트너십을 활용해 판매로를 개척하고 SIMPAC 브랜드를 알릴 수 있습니다.
- SIMPAC Europe과 한국 본사의 R&D 협력을 기반으로 지식을 공유함 으로써 동종업계 최고의 기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SIMPAC Europe은 이미 유럽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영어에 익숙하지 않고 아시아 문화에 대해 일부 우려를 갖고 있는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리를 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SIMPAC Europe은 "기업 정체성"을 강화하고, 유럽 내 PR 및 전시회 활동을 담당할 것입니다. 최고의 프레스 생산업체는 스탬핑 시장의 고객 뿐만 아니라 경쟁사에게도 스스로를 드러냄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SIMPAC Europe은 유럽지역의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독일에는 "최초의 프레스기계를 판매하는 것은 영업매니저이고, 이를 재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 유럽의 고객들은 스탬핑 시장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SIMPAC Europe의 성공을 통해 고품질의 프레스 제조업체로서의 SIMPAC 브랜드를 유럽 안팎으로 뻗어나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O3 SIMPAC을 이끌어갈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경영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스스로를 열린 사고를 하고 포용력 있으며 실천할 줄 아는 엔지니어라 생각하는데요, 성공과 발전은 팀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전 직원의 동기부여는 효율적 생산에 기반한 고품질의 제품을 이루어 낸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비전이 기업 내 모든 직원들에게 가시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는 일선 직원들과 직접 만나 이들의 업무와 개선점에 대해 파악하려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여러분 부서에 잠깐 들린다해도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애석하게도 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이같은 토론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되어있으니까요, 생각을 공유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 여가시간에 특별히 즐기는 것이 있습니까? 취미는 무엇입니까?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강과 호수 그리고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훌륭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기에 온갖 종류의 야외활동을 즐기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달리기, 수영, 산악자전거, 스키, 하이킹 등을 아주 좋아 하지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피트니스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어떤 활동을 즐기던지 저는 아내, 두 아들 그리고 딸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참, 제 사랑스러운 반려견도 빼놓을 수 없지요. 이들 모두 제 삶의 구심점입니다.

저는 책 읽기와 낯선 나라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의 시골풍경에 서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 05 SIMPAC 가족들에게 조언이나 새해인사를 부탁 드립니다.

SIMPAC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보낸 지난 몇 주는 정말이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따금 제게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지금껏 이뤄온 것들과 기술적 수준이 얼마나 훌륭한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 분들께 아래와 같이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보여준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낸 제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세계 최고의 프레스 생산업체로 거듭나겠다는 최고의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 SIMPAC의 일원이라는 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 18.

2017 NEW YEAR

#### 2017 SIMPAC STORY 신년호 특집

## 현재 SIMPAC의 시간은 몇 시 몇 분인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에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 이럴 때일 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이 실감하게 됩니다. 현대인에게 돈보다 중요한 자산, 시간. SIMPAC인의 시간은 얼마나 안전한가요?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신년호 SIMPAC is... 코너를 통해 SIMPAC인들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본 설문은 총 200명의 SIMPAC인들이 참여한 결과입니다.

58.5% 그렇다

시간관리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그렇다 58.5%

보통이다 34.5% 아니다 7%





**45.5%** TV 보기 등 미디어 이용

02 여가생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TV 보기 등 미디어 이용 45.5%

외국어, 자격증 등 자기계발 7%

맛집탐방 7%

독서 5%

기타 35.5%



19.



32.0% 메모의 생활화

시간관리를 위한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메모의 생활화 32.0%

계획적인 하루의 시작, 하루 목표 세우기 31% 나를 되돌아 본다, 체크리스트 작성 20% 스마트하게 관리한다, 시간관리 App 이용 1.5%

기타 15.5%

**68.5%**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 국내 및 세계 여행

04 업무에서 벗어나 여유시간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 국내 및 세계 여행 68.5%

나만의 취미생활 즐기기 16% 국내외 봉사활동 3%



기타 6.5%



05

#### 현재 SIMPAC의 시간은 몇 시 몇 분인가요?

- 00시 00분 하루가 시작되듯,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 06시 52분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 08시 30분 내 하루가 시작되듯, 나는 오늘도 앞으로 나아간다.
- 09시 00분 나의 가장 열정적인 순간이니까.
- 12시 00분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한끼처럼, 누군가에게 소박한 행복이 되고 싶다.
- 15시 00분 근무가 끝나 가족과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 17시 00분 열심히 일한 나에게 퇴근 후 또 다른 나를 위해 열정을 쏟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3시 00분 꿈이라는 여행이 언제나 설레듯이, 현실에서도 매일을 설레며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다.
- 23시 59분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으니까.







# 또 한 번의 시작, 우리는 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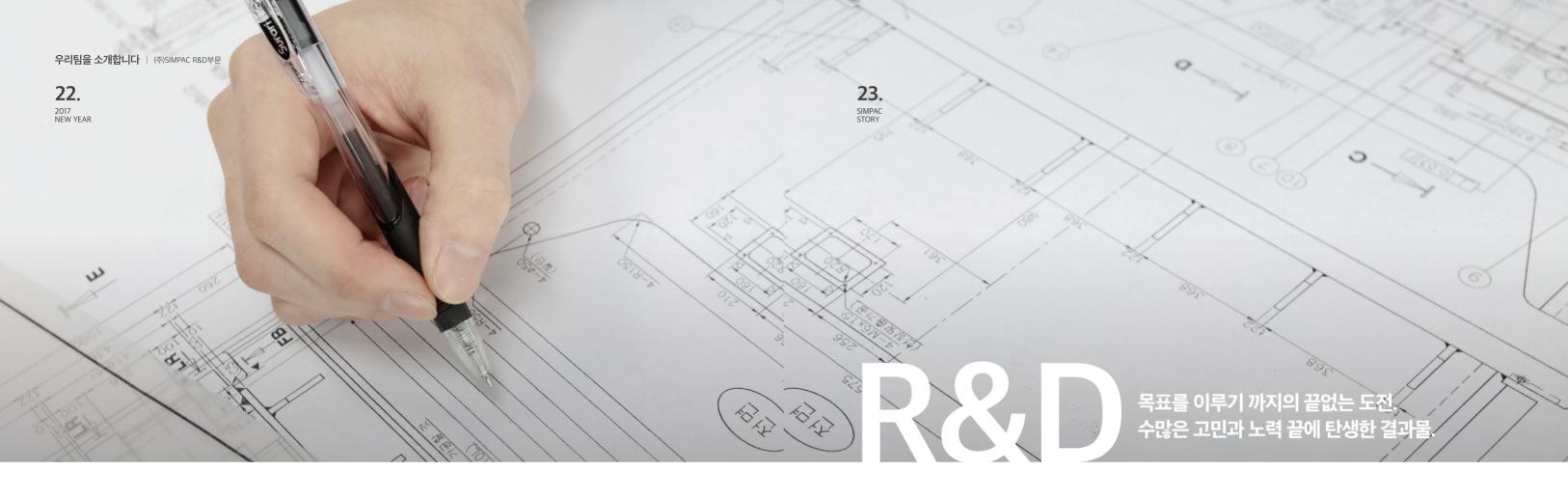
신기술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장의 요구에 결부시켜 제품으로 완성하는 일련의 작업, R&D. 기업의 미래 가치 상승을 끌어내는 R&D에 SIMPAC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그 걸음의 중심에 서 있는 R&D 부문 6개 팀의 각오가 뜨겁다.

• 개발팀 유현길 대리 • 전기설계팀 이창원 사원

•설계 2팀 유승우 사원 •설계 3팀 송혁 대리

• 설계 1팀 강준혁 대리 • 유압개선팀 최준호 사원





R&D부문, 6개의 팀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새롭게 도전하기에 새롭게 성장할 수 있을 터.





24.

2017 NEW YEAR



25.



#### 따로 또 같이 경쟁하고 협력하며 성장

2016년 12월 중순, SIMPAC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제품의 고품질화와 기업의 가치상승을 목표하는 R&D 부문을 6개 팀으로 세분한 것이다. 익숙한 울타리에서 벗어난 6개 팀은, 두 달여 만에 완벽히 제자리를 찾았다.

"설계팀이 1, 2, 3팀으로 가장 세분됐고, 주 업무에 따라 개발팀·전기설계팀·유압개선팀으로 나뉘어 개별적이면서도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중 개발팀은 고객사 영업의 토대 마련부터 수주설계와 특별사양의 프레스 개발 등을 담당 중인데요, 업무상 큰 변화는 없지만, 조직의 재편성으로 좀 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나 합니다."

개발팀 유현길 대리는 전 직원이 이전부터 업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도 빠르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자신했다. 설계 3 팀의 송혁 대리는 설계팀을 따로 또 같이 일하는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표현했다.

"한 명의 팀장 아래 수십 명의 팀원이 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세 개의 방으로 나뉘니까요. 조직 내 관계와 업무가 집약적이 됐다고 할까요? 팀장과 팀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의견 나누기도 수월해졌고요. 팀이 세 개다 보니 수주설계에 대한 접근방식과 아이디어도 세 배 늘었고요. 현재 진행 중인 표준화 작업까지 완료 후 공유되면, 정확한 매뉴얼 위에 팀별 개성을 녹인 결과물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 조직 재편성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은 유압개선팀의 최준호 사원은 팀 내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전해왔다. 유압식 프레스를 다루는 파트에서 팀으로 자리 잡으면서, 구성원의 기대가 어느 팀보다 높은 상태다.

"팀 체제를 갖추면서 타부서에 노출되는 빈도도 늘고, 회사의 지원 규모도 커져 팀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명확하고 원칙적으로 이끌어가자는 슬로건도 마련해서,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팀원 모두 노력 중이죠."

전기제품의 설계를 담당하는 전기설계팀의 이창원 사원 역시 독립적인 팀이 되면서 바쁘지만, 일하는 재미가 더 커졌다고 했다. 고객 사의 요구를 반영해 설계하다 보면 가끔 넘기 불가능해 보이는 산을 만나기도 하지만, 서로 이끌어주며 힘을 다하고 있다.

"저희 팀이 특수 프레스 설계로 손이 많이 필요한데, 신입시원이 여럿이다 보니 팀장님과 대리님이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도 신입시원들이 제 몫을 하려고 늘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기특한 마음으로 가르쳐도 주시고 기다려도 주시고…"

그래서 R&D 부문의 변화에 대한 6개 팀의 생각은 다르지 않다. 설계 1팀 강준혁 대리와 설계 2팀 유승우 사원의 말을 빌자면 개인과 팀이 함께 성장할 기회인 것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정의 하루가 시작된다.



**26.**2017
NEW YEAR



"한 분야에만 머물다 보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인력이 재편성되니까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면서, 이 일 저 일 다 가능한 전천후 인재로 클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다른 팀과 선의의 경쟁과 협력도 할 수 있고, 팀의 세분으로 팀원 관리와 운용도 한결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 SIMPAC 이끌 전문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

SIMPAC R&D 부문 6개 팀에게 바쁘지 않은 날은 없다. 요즘 같은 일 년의 초입에서는 긴장감도 두 배로 늘어난다. 첫발을 잘 디뎌야다음 걸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6개 팀은 개인별 팀별 프로젝트 수행에 시간을 쪼개 쓰고 있다. 유압개선팀은 포스코 납품등 6~7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 중이며, 전기설계팀은 디지털 프레스 설계와 서버 작업 등 고난도 업무에 매달려 있다. 점차 변해가는 프레스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 새로운 프레스를 개발해야하는 개발팀의 분주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주설계로 풀가동 중인 설계팀은 표준화 작업에도 열성적으로 나서, 겨울 끄트머리의 추위도 이길 태세다.

"저희 6개 팀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직원들의 역량 키우기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를 끝까지 이끌 수 있도록 계속 지원 중이죠." 개발팀 유현길 대리의 이야기에 설계 3팀 송혁 대리가 가세했다.

"설계팀의 경우에는 전체 설계는 기본이고요, 더 깊이 알기 위해 프레스 부품마다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교육과 현장실습을 제공해 직원들의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책상 앞에서만 전문가가 아니라, 현장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목표입니다."

회사와 직원들이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시간. 그 시간 덕분에 고객사의 어려운 요구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는 SIMPAC의 저력이 쌓인 건 아닌지.

"커피 한 잔도 사람마다 마시는 방법이 다른데, 일에 대한 접근방식은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설계 1팀에서는 새로운 방식을 자유롭게 말하고,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다음 프로젝트에 반영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돼 있는데요. 그게 저력의 토대가 아닐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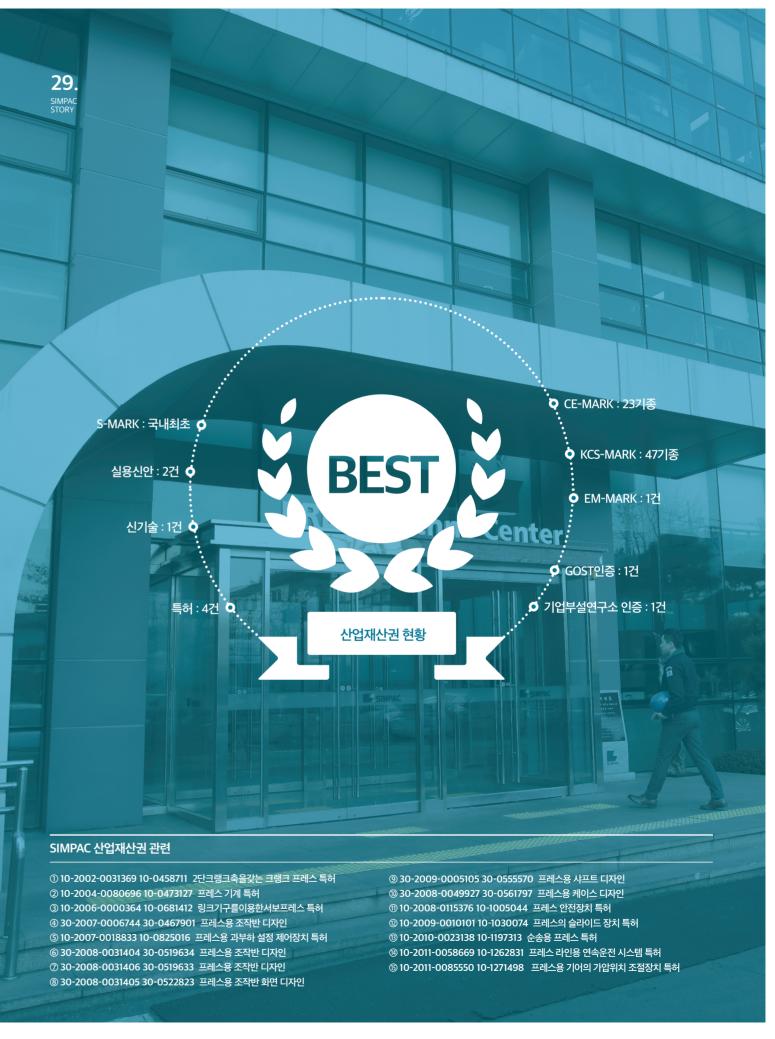
강준혁 대리의 말에 설계 2팀 유승우 시원은 "팀워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유압개선팀 최준호 시원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채근하지 않는 태도"를 숨은 힘이라 덧붙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을 꺼내본다. 고리타분하다 타박해도 R&D 부문 6개 팀을 표현하기에 이 말만큼 딱 맞는 건 없다. 이전에도 지금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이는 이들의 내일에 걱정 어린 시선은 거둬도 좋겠다. SIMPAC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야무진 각오는 각오로만 머물지 않을 테니. 전기설계팀 이창원 사원의 약속처럼.

"너무 뻔하지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저희는 열심히 할 겁니다. 박수 받을 때도 질타 당할 때도 있겠지만, 주춤거리지 않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SIMPAC의 핵심, R&D 부문 6개 팀이니까요!"







우리팀을 소개합니다 | (주)SIMPAC R&D부문



#### 강준혁 대리

● 볼펜: 소형팀에 배치되어 처음 일을 배울 때 계시던 팀장님께 서 쓰던 볼펜이었습니다. 배울 때의 초심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펜을 집으며 입사 당시의 마음과 존경하는 팀장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흐트러진 정신을 다잡곤 합니다.

② 안전화와 각반: 설계팀원이 현장에 간다는 것은 대게 설계 작업과 현장 조립작업간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안전화와 각반을 착용합니다. 착용하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신인 때의 자세로 돌아가며 겸허한 마음을 되찾곤 합니다.

#### 유승우 사원

● 청파일뭉치: 신입으로 처음 입사하여 업무를 진행하면서 모르는 것들, 새로 배우는것들,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그때그때마다 청파일에 철하였습니다. 지금 입사한지 3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청파일을 다시 보니 제가 처음 입사하였을 때 업무에 대한 마음가짐을 지금도 느낄 수 있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였는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 안경: 입사하기 전에는 안경을 쓰지 않았는데 도면을 보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시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노력에 대가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고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 송혁 대리

● 명함: 입사하고 처음 받았던 명함입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중간중간 새 디자인의 명함 또는 R&D내 조직개편이 되면서 새로운 명함을 몇 번 받았었습니다. 많은 명함들 중에 처음 받았을 때 명함을 보면 입시했을 당시 각오나 포부들이 생각나며 초심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아이템인 것 같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 안전모: 입사 당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더라도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 안전장비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갖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보호해 주는 안전모를 보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소중한 아이템입니다.

31. SIMPAC STORY



#### 유현길 대리

● 표준 기계설계도표편람: 손 때 묻은 이 서적은 제 기계설계지식의 바이블과도 같습니다. 군데군데 찢어지고 빛깔도 많이 바래서 너덜너덜해진 볼품없는 외양이지만 제가 SIMPAC의 R&D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책입니다. 사회인으로서의 제 성장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녀석을 제 아이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③ 목장갑: 송혁 대리와 미찬가지로 입사 당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안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장비를 다루는 회사이다보니 자칫 잘못하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목장갑을 보면 새내기 때에 들었던 안전관련 교육이나 고참들의 여러 가지 조언들이 떠올라 초심을 다잡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곤합니다.

#### 이창원 사원

● 설계도면: 저의 사무실 바로 뒷자리에 위치한 전기 설계도면 들은 전기설계팀의 모든 지식이 집합체 입니다. 이런 도면들을 신입사원으로서 사무실에 처음 배치 되었던 첫 날 부터 오늘까지도 저의 책상위에 쌓여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애착이 가네요.

● 다이어리: 다이어리는 처음 설계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많이 보는 교재입니다. 설계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과 기종이나 오면 다이어리 전단에 있는 사진을 참고해서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의나교육을 들을 때면 항상 들고 다니는 존재여서 저와 같이 다니는 처음 사귄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 최준호 사원

● 텀블러: 이 텀블러는 제게 이런저런 업무를 인수인계 하던 선배님께서 퇴사하면서 주신 선물입니다. 텀블러에는 제 동기들과 신입사원 OJT 기간에 찍은 사진이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당시기억이 떠오르면서 입사 당시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 시계: 시계를 선택한 것은 저의 입사와 함께 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출근부터 퇴근까지 저의 하루를 책임지는데요. 덕분에 출근도 업무도 계획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계를보면 제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 번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게됩니다. 그래도 항상 시간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계획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33. SIMPAC STORY

#### 상대적인 시간관념 속에서 효율을 높이기

시간은 생각하기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 상대적인 관념이다. 회의를 30분만 넘기면 길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회의는 기본적으로 1시간을 넘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회의를한다면 둘 중하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시간을 다루는 기술이 중요한 이유다.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시간은 물론, 상대의 시간까지도 탄력적으로 조율하는 능력을 선보인다.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시간을 소비하는가, 낭비하는가? 시간을 죽이고 있는가? 시간의 때우고 있는가? 시간이 쓴살같이 가는가? 시간이 계획한 대로 칼같이 맞아 떨어지는가? 자신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솔직하게 떠올려 보자. 그것이 바로 당신이 자신의 시간에 대해 갖는 관념이다. 자신의 시간관념을 맡은 일에 맞도록 설정해야 한다.

####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만들어 내기

맨날 시간이 없다,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다.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남들보다 바쁜 외중에도 철저한 스케줄 관리를 통해시간을 만들어 낸다.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은 언제든지 있다. 자신의 성취감을 위해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한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바빠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데 골몰하지 말고, 삶이나 일에별로 도움이 안되는 일들을 줄이고, 외부에 위탁하는데 창조성을 발휘하자. 몇 가지 질문이 도움이 된다.

- 이 일을 해야만 하나?
- 이 일을 내가 해야만 하나?
- 이 일을 지금 해야만 하나?
- 이 일을 나만큼 잘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위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자신만 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몇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다.



####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방법 시간의 효율을 높이는 비결 5가지

ABCDE법칙으로 업무의 우선순위를 매겨라

특정한 일을 했을 때, 혹은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결과에 대해 예상하는 습관을 들이자. 중대한 결과가 예상된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며, 특별한 결과를 예상할 수없다면 우선순위가 낮은 일이다. 업무의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A, B, C라는 꼬리표를 붙여 보자.

A업무는 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 일을 하면 엄청난 성과를 낳는다. 그러니 업무를 완수하는 것이 일과 인생에서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B업무는 해야 하는 일이고, 언젠가는 할 필요가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A업무를 마치지않은 상태에서 B업무로 넘어가면 안된다. C업무는 하면좋은 일이다. 하지만 업무를 마쳐도 특별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B업무를 끝내지 않고 C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 ABCDE 방식을 적용한 다음, 급하고 중요한 업무를 선별해 A, B, C 순서대로 일할 줄 안다.

20/80 파레토의 법칙을 기억하라

1895년 파레토가 처음 발견한 법칙의 이름이다. 파레토 법칙은 20대 80의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모든 일에는 파 레토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의 20% 가 제품의 80%를 구매한다. 제품과 서비스의 20%에서

일의 중요도를 따져라



이 일을 해야만 하나?



이 일을 내가 해야만 하나?



이 일을 지금 해야만 하나?



이 일을 나만큼 잘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34. 2017 NEW YEAR



시간관리 Tip



ABCDE법칙 업무의 우선순위



20/80 파레토의 법칙



시작하면 끝까지 마쳐라



비슷한 일을 묶어서



업무 시간에는 일에 집중

80%의 매출이 발생한다. 또한 20%의 고객이 회사에 불만을 제기해서 80%의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

파레토의 법칙을 업무에 적용하자. 업무의 20%가 성과의 80%를 만들어낸다. 수많은 업무 중에서 단 20%의 일이 다른 모든 일을 합친 것만큼 중요하다. 그러므로 똑같은 시간을 들여 몇 배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20%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

많은 시람들은 시간을 업무의 수로 나누어 할애한다. 그러나 진정한 프로페셔널은 업무의 가치에 따라 시간을 배치한다.

####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마쳐라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 100% 완수하기 전에 그만두지 말라. 이렇게 하면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은 업무 중에 쏟아지는 이메일을 처리하느라 하루 평균 2시간을 소비한다. 연구 결과, 이메일을 확인하느라 하던 일을 중단한 후 원래 하던 일의 흐름을 타기까지 평균 25분이 소요된다. 긴급하게 답장해야 할 이메일은 (앞서 말한 파레토의 법칙에 따라) 20%밖에 없는데도, 이메일을 확인하느라 업무 시간을 낭비한다. 그러니 자신이 목표한 업무의 분량을 마칠 때까지 이메일 알림 소리를 끄고, 스마트폰은 무음으로 해두자. 정말 긴급한 전달사항이 있다면 책상 위의 전화가울릴 것이다.

프로페셔널한 시람은 중요한 업무에 매진하면 끝마칠 때까지 집중한다. 프로페셔널은 하나의 업무를 끝냈을 때느끼는 성취감이 다음 업무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 비슷한 일을 묶어서 처리하라

업무를 한 데 묶는 습관을 들이자. 학습곡선을 연구하면 비슷한 일을 죽 계속해 나갈 때 같은 수준이나 더 높은 수준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의 답장은 한꺼번에 몰아서 쓰자. 사업 계획서도 마찬가지다. 결제도 한 번에 몰아서 받는 편이 좋고, 모든 영수증도 몰아서 처리한다.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 업무를 보아야 한다면 이 업무도 시간을 잡고 몰아 서 처리하자.

효율성 전문가들에 따르면, 10개의 비슷한 업무를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 두 번째의 일은 첫 번째 일에 걸린 시간의 20%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효율적이라고 한다. 일을 묶어서 처리하는 것은 프로페셔널의 강력한 일처리 방법이다.

#### 업무 시간에는 일에 집중하자

다른 사람보다 오래, 열심히 일하는 습관을 익히자. 매일 저녁 야근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업무시간 내내 일을 하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하루의 업무시간 중의 50% 이상의 시간을 개인적인 검색, 동료와의 잡담, SNS 등으로 허비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업무시간에는 일을 하라. 일단 일을 시작하면 어슬렁거리지 말고 하루 종일 바쁘게움직여 보라. 이렇게 일을 한다면 생산성이 50~100% 높아질 것이다.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일을 빨리 하고 빨리 마친다. 속도가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먼저 일을 마치는 사람이 되자.





35.

<1만 시간의 재발견> 안데르스 에릭슨, 로버트 풀 지음, 강혜정 옮김, 비즈니스북스

무슨 일을 하든 1만 시간의 연습을 통해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법칙이 '1만 시간의 법칙'이다. 말콤 글래드웰은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비틀 조와 빌게이츠 같은 사람들의 성공 비결이 1만 시간의 연습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신경과학자 다니엘 레비틴도 매일 3시간 이상 10년 동안 쉼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책은 '1만 시간의 법칙'의 핵심이 '얼마나 오래나'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법이나'라고 지적한다. 맞는 말이다. 진정한 프로페 셔널은 무턱대고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프로는 집중해서 의식적으로 일하며 자신을 발전시킨다.



## <하루관리> 이지성, 황희철지음, 차이

하루를 관리하면 인생을 관리할 수 있다. 하루관리는 단순히 시간을 쪼개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루를 관리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원하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프로페셔널한 시간관리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책의 말미에 '하루관리 플래너'와 '경제관리 플래너'가 실려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 <당신의 하루는 27시간이 된다> 기무라 아키라코 지음, 김혜영 역, 한스미디어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24시간을 27시간으로 늘려서 살 수 있다니, 그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이 책에서 46가지의 습관으로 이뤄진 4주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본인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시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6년 동안 개선을 거듭하며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다. 먼저 하루의 리듬을 바로잡고, 하루의 생활습관을 개선한 다음, 업무랑과 처리 속도를 바로잡은 후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하루에 3시간의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을 실천해 보자.



차 한잔 나누며 Talk Talk | 2년 차들의 솔직담백 Work story

38. 2017 NEW YEAR

풋풋함과 능숙함, 그 사이에서 제 길을 찾고 있는 이들이 모였다. 신입 딱지를 떼어냈다는 대견함과 아쉬움에 울컥하다가도, 숨은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중압감에 입안이 바짝 마른다는 2년 차 SIMPAC인이다. 잘해 온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잘할 수 있을 건지 고민의 연속이라는 이들의 속마음을 들었다.





#### Q.애매하다면 애매한 2년 차, 현재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쯤인가요?

김선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딱 잘라 말하기 힘든 곳까지 전천후로 뛰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직원들을 전방위로 지원하다 보니 상대를 살피고 돌보는데 최적화됐다고 할까요.

최선호 현재 직무에 만족하는 자리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고 객사에 고품질의 생산물을 출하하기 위해 꼼꼼하고 왼벽하게 품질을 관리하는 일이 좋거든요.

박경호 여기 만족자 한 명 더 보탤게요. 합금철생산에 관련한 기계와 구매업무는 저한테 딱 맞는 옷입니다. 현장이 주는 강인한 매력에 울고 웃으면서 일하고 있죠.

유선용 지금껏 주물생산을 담당하는 주물파트에서 일하다가, 올해 소재영업팀으로 전환배치 됐는데요. 덕분에 신입인 듯 신 입 아닌 신입 같은 2년 차로 뛰고 있습니다.

최준호 제가 일하던 파트가 당당히 팀으로 독립하면서, 마음 은 즐겁고 어깨는 무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2년 차답게 더 완벽 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성실 모드 작동 중이고요.



#### Q.인구 3명 중 1명이 직장인, 직장인에게 2년 차는 어떤 의미일까요?

김선일 운동선수도 신인 시즌에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다가 다음 해가 되면 고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년 차 직장인도 비슷합니다. 아는 게 많아지니까 오히려 실수가 늘기도 하고, 신입 때보다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유선용 신입 시절 주어지는 실수에 대한 격려나 방패막이가 없어져서, 종종 고비를 느끼는 게 2년 차의 숙명이에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데,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박경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얘기네요. 사실 같은 업무를 사계절 넘게 하다 보면, 윗분들이 무언의 질문을 하세요. 이 정도 일은 너끈히 처리할수 있지 하고요. 믿고 맡겨주시니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제대로 할수 있을까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르쳐주고 격려해주는 동료들이 없다면 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거예요.

최선호 2년 차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지만, 반대로 자신감도 높아지는 시기죠. 신입 때는 선배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다 하나 싶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 일을 하고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력도 지녔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최준호 한마디로 복잡미묘한 시기에요, 부담감, 중압감, 의욕, 자신감, 책임 감 등이 뒤섞여서 걱정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일하면서 열심히 걱정하는 직장인의 필수코스 같은 거죠.

#### Q.신입 얘기가 나오니 궁금해지네요. 그 시절 여러분은 어땠나요?

유선용 지금보다 15kg이 없는 날렵한 모습의 제가 보이는군요. 식사하고 바로 일하고, 회식이나 고객사와의 만남에도 참여하다 보니 살이 많이 쪘어 요. 사실 가지고 있는 정장이 하나도 안 맞아서 결국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 거든요. 좀 속상합니다.(웃음)

최선호 저는 많이 긴장한 편이었어요. 일을 배워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에 누구에게든 배우고 싶었죠. 갑자기 사수가 타부서로 옮기는 바람에 인수 인계 기간에 사수의 모든 걸 내 것으로 만들겠다며 복잡한 일부터 미친 듯이 배우던 모습도 생생하고요. 그 부작용으로 어려운 일은 잘하는데 쉬운 일은 허둥 거려서, 이상한 녀석이라고 오해받기도 했지만요.

김선일 신입시원을 지켜보는 보이지 않는 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신입 시절을 보냈 죠. 종종 반듯하다는 말을 듣는 걸 보면 그때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나 봅니다.



첫 마음, 초심은 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다. 초심을 지켜나가는 2년 차 SIMPAC인. 위기에 굴하지 않고 더 큰 꿈을 위해 다시 한 번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더 아름답고 밝은 성공의 빛을 향해.



최준호 당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차 한잔하자'였어요. 막 사회에 나왔던 때라 100% 글자 그대로 차를 마시러 갔었죠. 지금은 차 한잔하자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고민하지만요.(웃음) 신기함과 설렘으로 출근하던 시절이라 가능했던 일이었죠.

박경호 전 업무 피드백 관해서 자주 들었어요. 지시가 내려오면 빠른 피드 백이 필요한데 신입이라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 중요성을 잘 알지도 못했거 든요. 덕분에 일을 잘하는 것 못지않게 적절한 시기에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 Q.2년여의 시간 동안 가장 달라져서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요?

유선용 익숙함과 멀어져야 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저처럼 다른 팀으로 배치되면서 처음부터 일을 배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이제 변화에 익숙해 질 연차라는 생각이 들죠.

최선호 업무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조금 나태해지지 않았나 해요. 가끔 일을 내일로 미루라는 유혹의 속삭임이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기반성에 돌입합니다.

김선일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패기도 조금 꺾인 기분이에요. 허무함을 느끼거나 파이팅 하는 마음이 줄어든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최준호 그게 다 직장인은 물론 세상 사람들 모두가 겪는 과정 아니겠어요? 삶의 패턴이 정해지면 변화하기 어려우니까, 안 하던 고민도 하게 되고….

박경호 자기계발에 쏟을 여유가 있으면 그런 고민이나 속상함도 줄어들 텐데, 이쉬워요. 업무 관련 공부든 여행이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합니다.

#### Q.입사 이후부터 지켜온 '나만의 초심'은 무엇인가요?

김선일 제 시전에 지각은 없습니다. 일찍 출근하는 습관을 쭉 고수해왔거든 요 출근 시간에 맞춰오면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여유가 없어서 이른 출 근만큼은 꼭 지키고 있죠.

최선호 저는 업무 관련 내용을 자료화 문서화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어요. 누구든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요. 정보 공유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거든요.

박경호 그간 동료에 대한 관심을 잃은 적은 없어요. 어디가 아픈지, 힘든 사정은 없는지 애정을 품고 있어야 유대감이 형성돼서 업무성과도 좋아집니다.

유선용 입사를 하면서 주어진 일만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자는 목표를 세 웠는데요. 지금까지 그 목표를 잘 지켜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잘 지켜야 하고요. 최준호 에이 뭐야 할 수도 있겠지만, 끼니를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어 요. 일 때문에 밥도 먹지 못한다고 불만을 느끼는 것보다, 밥 먹고 힘내서 일 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 Q.꼭 보여주고 싶은 나의 능력 혹은 각오가 있다면요?

유선용 저는 영업과 생산 관련 업무를 동시에 맡은 유일한 직원이거든요. 이 절호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뭘 시켜도 못 하는 게 없는 전천후 인재 로 클 생각입니다.

김선일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하잖아요. 제가 없을 때 회사 전체가 저의 진가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김선일 표 재기발랄함이고 토대가 될 거고요.

최준호 이만큼 성장했으니 저를 알아봐 달라고 조르고 싶지는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여주면서, SIMPAC의 한 부분으로 천천히 녹아들고 싶습니다.

최선호 사수 없이 신입사원이 혼자 일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선배들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꼭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박경호 누구 없이는 업무 진행이 안 된다는 말, 직장인이라면 다들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 얘기의 주인공인 여기 모인 2년 차들이 됐으면 합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어서 내일이 온다는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재들이니까요!







#### 2012년.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얼마나 다를까? 그때의 초심을 난 잊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 해 2월, 나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6개월 동안 살았다. 그때의 공기와 냄새, 사람들의 표정들은 아스라이 기억되지만, 분명한건 그때의 나는 그 전과는 많이 달려졌었다.

그때 나의 초심을 몇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유롭게 사는 잠비아 사람들을 보면서, 작은 것에 매달리고, 고민하고, 걱정하던 지난 과거를 후회했다.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소한 것에 염려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백년도 못 살면서 천년을 근심하면서 살지는 않기로 한다.

#### 2. 나누면서 살자.

세상에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척이나 풍족하고, 그런 것들을 꿈조차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만 양보하고, 덧없는 욕심은 버리기로

#### 3.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자.

열정을 가지고 나 스스로 성장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로 한다.

그때 끄적인 소소한 일상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초심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 43.





잠비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다

팔색조 매력 카멜레온과의 만남

#### 잠비아에 온 이유

마음을 먹은 그때는 2011년 봄, 한창 학교도 빠지면서 술 마실 때였다. 술보다 유난히 형들과 나누던 이야기의, 또 조언들의 큰 가치를 느꼈던 그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다.

알아챌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통장을 빠져나가는 그 적은 돈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 한걸음밖에 남지 않은 졸업을 앞두고 해내야 할 것들은 많았지만, 자신은 있었다. 그래서 별 고민 없이 떠날 수 있었다.

가끔 네 진로를 봉사하는 것에 두었냐는 질문을 받는다. 대답은 아니다. 그러기에 내 용기는 부족하다. 하지만 평생 옆에 끼고 살아가려는 것임은 분명하다. 지금이 아니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

사회로 휩쓸려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건 다 하려 했는데, 이게 아마 지금 이 때에 내가 하고자하는 마지막이지 싶다. 남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내키지 않게, 생각보다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다행인건 조금씩 바라던 빛이 보인다. 이십대, 두 번째로 잘한 선택이다.

#### 잠비아. 그리고 첫 만남.

Poor Area에 갔다. 무슨 사파리 구경도 아니고, 사람들 사는데 간다는 게 조금은 못마땅했다. 괜한 미안한 마음에 시진 찍는 건 생각도 안했다. 비가 와서 시장 천막에 들어갔다. 열댓 명의 아이들이 다가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앞에서 멀뚱멀뚱 쳐다만 본다. 간단한 인시를 나누고 나도 멋쩍어서 가만히 있었다. 정말 가만히 서로 쳐다만 보며 20분이 흘렀다. 손바닥에서 배추 잎이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줬더니 친구가 되었다.

돌아가는 기찻길까지 쫓아와서 손을 흔들어준다. 아직도 비밀을 모르는 그들에게 나는 마법사일지도

#### 카멜레온과의 데이트

길을 걷다 카멜레온을 발견했다. 나뭇가지에 매달고 집으로 데려왔다. 촬영을 시작하고 몇 분이 지나니 금세 색이 변했다. 그리고 몸을 부풀리더니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위협했다. 나뭇가지를 잡고 있던 손으로 달려와서 깜짝 놀라 놓쳐버렸다.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잠비아에서 일상 한 컷







그들의 춤을 보면 절로 흥이 난다

잠비아 라디오 방송국에 깜짝 출현하다

#### 축과 노래

그들은 춤과 노래를 좋아한다. 춤은 엉덩이를 정신없이 흔드는 춤을 주로 추는데 아이들도 곧잘 춘다. 노래는 다양한데 우리나라의 '쾌지나칭칭'처럼 다 같이 후렴구를 부른다. 뷰민라가 끝났다는데 GMF는 여자시람과 손 꼭 잡고 갈 수 있을까? 혼자가야겠다.

같이 시는 탈리타는 데이브레이크의 팝콘을 lolly lolly pop pop 하며 따라 부른다.

#### 라디오 방송국

집에 돌아와서 라디오를 켰다. 약속대로 디제이 샤론이 이름을 불러줬다.

그 시절, 녹음해야하는데 전주와 함께 곡 소개하는 디제이가 미웠다. 내 이름은 음악 중간에 나왔다. 고1 때 정지영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 밤, 너무 설레고 괜히 부끄러워서 밤잠을 설친 기억이 난다. 너무 울어서 노래만 연달아 흐르던 마지막 방송이 기억난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키가 크지 않은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새벽까지 라디오를 들어서라고.

그 시절, 내 성장판은 달콤음악상자와 함께 닫혀버렸다.

#### 손목시계와 금니

물 달라, 설탕 달라, 일거리 달라, 돈 달라. 얘네 들은 뭘 그렇게 달라고 한다.

이들에게 외국인은 무조건 부유한사람들이다.

정답을 찾았다. 과자를 먹고 있는 소아에게 다가간다.

"너 어디 가냐, 나도 그쪽으로 간다. 잠깐 나 못 걷겠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고프다. 그 과자 맛있냐. 좀 달라." 식사시간에 맞춰서 이웃집에 방문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티비를 본다. "티비 재미있다. 우리 집은 티비가 없다. 게다가 지금은 물도 안 나온다. 그래서 요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티비를 보고 있으면 어느새 식사가 대접된다.

난 목이 늘어난 티셔츠와 페인트 묻은 반바지를 입고 다닌다.

남루한 차림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부유함의 상징은 어둠속에서도

G버튼 하나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손목시계와 네 개의 금니.





오늘은 치킨 먹는 날

#### 치킨먹는 날

유명 치킨레스토랑 Hungry lion과 Zamchick, 언제나 사람이 많다. 그들에게 질서는 없다. 키운터에 있는 직원의 손에 먼저 돈을 쥐어주는 사람이 우선이다. 망설이다간 오늘 치킨을 먹지 못할 수도 있다. 외국인이니 직원과 눈 마주칠 확률이 높다. 이 때다 싶을 때 돈을 그의 코앞까지 내밀면 오늘은 치킨 먹는 날.

#### 실비아와 주머니

나는 여섯 살, 아님 일곱 살 정도였을 거다. 밀알유치원 바다반 시절. 지하 강당에서 다 같이 율동을 하는데 저 멀리 피부가 새하얀 아이가 있었다. 아마 하늘반인 듯했다. 나는 짝이 바뀌는 음악과 음악 사이에 아주 빠른 걸음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갔고, 짝이 세, 네 번쯤 바뀌고 나서야 그 아이와 짝이 되었다. 두 손을 잡고 가까이서 본 그 아이는 그냥 참 피부가 하얀 아이였다.

집에 리모컨이 고장 났다. 외할머니 댁에 TV가 같은 기종이라 리모컨을 빌리고, 돌아오는 32번 버스 뒷문 앞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소란스러워 잠깐 깼는데 옆에 서있던 누나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버스에 어린 꼬마애가 리모컨을 손에 꼭 쥐고 있는 게 우스웠던 모양이다.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누나들이 내릴 때까지 자는 척했다. 결국 내려야할 곳을 지나쳤고 반대편에서 버스를 다시 타야했다.

그 하얀 아이도, 누나들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너희들도 나를 잊고, 그냥 다른 피부색의 어떤 시람으로만 기억하겠지. 아니면 아예 잊거나.

그래도 실비아 너만은 나를 기억해줄 거지? 넌 피부가 하얗지는 않지만 우린 서른두 번 넘게 손을 잡았고 뽀뽀도 한번 했으니까.

아빠는 남자가 아니고 너는 오빠도 없으니 네가 처음으로 뽀뽀한 남자는 나야. 사실 흠 뭐랄까 난 전에 해봤어. 서로가 처음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너무 슬프잖아. 난 너보다 이십이 년을 더 살았는데.

널 접어서 여권에 끼워 비행기에 오르고 싶지만 승무원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럴 수가 없어.



내 친구 실비아, 기억할게

살아가면서 다시는
잠비아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때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지겠지만,
그래도 초심을 떠올리며
매일에 감사하고, 내가
쌓은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지켜낼 수 있기를





아빠와 함께 | 출발선에 선 내 아이에게

46.



## 출발선에 선 내 아이에게

아빠 : SIMPAC메탈로이 1공장 전기로 김동수 자녀 : 김희성

사랑하는 아들 희성아

네가 처음 세상에 나와 나를 아빠로 만들어 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첫걸음을 하는구나.

항상 밝고, 명랑한 지금의 모습을 더 보고 싶은 것은 아빠의 욕심이겠지? 초등학교는 지금껏 다닌 유치원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늘 의젓하고 명랑한 우리 아들 희성이를 믿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된단다.

우리 희성이가 좋아하는 푸른 바다에서 새로운 항해를 출발하는 저 배처럼 힘차고, 희망차게 새로운 배움을,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언제나 아빠와 엄마, 그리고 동생 소윤이까지 든든한 돛대와 노가 되어 항상 너를 응원 할 테니 말이야.

우리 아들 희성아~ 모두가 사랑하고, 응원하는 거 잘 알지? 유치원 졸업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 더 축하해~

나에게 웃음과 희망이 되는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아빠가

아빠 : SIMPAC메탈로이 2공장 가공반 임일훈 자녀 : 임서진

아빠의 미소천사 서진이에게

퇴근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빠 볼에 뽀뽀해주고 안겨주는 우리 서진이. 아빠에게 곧잘 "아빠 사랑해" 라고 얘기해주는데 정작 아빠는 쑥스러워 "응" 이라고만 대답 한 것 같다. 그래서 아빠는 용기를 내어 서진이에게 편지를 써 보려고 해.

서진이가 태어나던 그 날 아빠에게는 물론이고 온 가족의 큰 기쁨이고 축복이었다. 그러던 네가 어느덧 훌쩍 커서 "아빠"라고 똑똑히 불러줬을 때, 아빠는 또 한 번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학부형'이라고 생각하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빠! 이제 유치원에서 일곱 살 언니 반 되었어요"라고 좋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친구들 모두 유치원을 졸업하고 새롭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구나! 조금 두렵 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겠지만 서진이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초등학교 가서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란 것처럼 밝고, 예쁘게 자라줄 것을 아빠는 항상 믿고 있어.

아빠가 회사 일이 바빠서 잘 놀아주지 못했지만 앞으로 서진이하고 얘기도 더 많이하고 올해는 캠핑도 가서 놀아주려고 노력할게. 지금의 서진이가 아빠는 너무 고맙고, 아빠 딸이라서 정말 행복하단다.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우리 딸.

너의 영원한 해바라기 아빠가

47.

사랑하는 승연에게.



승연아, 아빠야. 얼마 안 있으면 유치원 졸업식이구나. 고사리 손을 잡고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생이 되네. 엄마, 아빠는 언니와 같이 아옹다옹 잘 커준 승연이가 무척 지랑스럽구나. 아빠는 네가 잠든 시간에 이 편지를 쓴다다.

돌이켜 보면 유치원 생활 3년 동안 엄마, 아빠가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정말 미안하구나. 아빠는 주말에 규연, 승연이와 함께 놀자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못한 게 제일 마음에 걸린단다.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일찍 퇴근해서 못했던 얘기와 유치원 생활 중에 있었든 일 관심 있게 들어보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런데도 우리 딸 아빠가 늦게 와도 항상 반겨줘서 그 맛에 살아가는 이유를 안거 같아 기쁘구나. 힘든 시간에도 늦게까지 그림 그리고 색칠까지 해서 엄마, 아빠 보여준다고 그리다 소파에서 살며시 잠든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찡 하단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 직장 일로어린 너를 할머니, 할아버지께 맡겨 기를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아프단다.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더 죄송하지. 노년기를 엄마, 아빠직장생활로 아프신 몸으로 규연, 승연이를 아무 탈 없이 키워주신 은혜절대로 잊어선 아니 된다. 알겠지? 엄마, 아빠도 항상 죄송스런 맘으로살아가고 있어. 지금은 추억이 됐지만, 그때 언니와 너를 맡기고 돌아설때많이 울었단다. 너는 모를 거야. 생각은 나니? 유치원 입학 전 때였으니까.그런 아기가 벌써 유치원 졸업식 앞두고 초등학교 입학 이라니, 세월이 참빠르긴 빠르구나.

엄마, 아빠가 가장 놀랐던 적이 언제인지 아니? 4살 때였던가. 네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잠을 잤는데 숨도 안 쉬고 침대에서 누워 구토해있는 모습을 할아버지가 발견하고 응급처치 후 구급차를 불러 병원갔던적. 그때 아빤 너무 많이 놀라서 운전 중에 "승연아 살아 있어줘. 살아 있어줘"하고 병원에 갔던 적 엄마, 아빠는 기절할 뻔했단다. 다행히도 응급실에 도착하니 고열로 인한 쇼크라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눈을 뜨고 누워서 엄마, 아빠한테 "나 괜찮아"라고 말을 할 때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더라. 우리 딸들 이제는 그렇게 아프지 말아다오. 항상 차 조심하고. 알겠지?

승연아, 초등학생이 되면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지금보다 훨씬 많을 거야. 조금만 지나면 엄마 키와 거의 비슷해질 우리 두 아가씨들, 욕심도 많겠지. 엄마, 아빠는 무엇보다 우리 승연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친구들과 잘 보냈으면 한단다.

엄마, 아빠는 우리 승연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 독서를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단다. 공부도 좋지만 책을 많이 읽는 딸이 되길 바라. 그리고 너에 특기인 그림 그리고 좋은 친구도 많이 사귀고. 엄마, 아빠는 네 성격이 활달해 친구를 잘 사귀리라 믿는다. 유치원 선생님도 네가 리더십이 있어 두루두루 잘 사귄다고 말씀하셨거든.

아 참, 입학선물로 책가방을 받고 싶다고 했지? 편지 쓰기 전에 엄마, 아빠는 결정했단다. 엄마가 꼭 시주자고 하셨다는 사실, 잊으면 안돼! 유치원 졸업식이 끝난 뒤 함께 가서 사자.

어느덧 밤이 무척 깊었구나. 사랑하는 우리 딸, 유치원 졸업 다시 한 번 축하하고, 초등학교 입학 진심으로 축하한다. 사랑한다. 우리 첫째 규연, 둘째 승연, 마지막 연인 내 아내 쪽.

사랑하는 아빠가.

## 인사소식

## (주)SIMPAC



#### 이동환 부사장

現 2017,01.01 부사장 부문장(영업, 품질 부문) 2016,12.01 전무이사 부문장(영업, 품질 부문) 2016,01.01 전무이사 국내영업 부문장 2015,01.01 전무이사 부문장(영업, R&D 부문) 2011,01.07 상무이사 영업본부 본부장 2008,12.15 이사 국내영업본부 본부장 2006,05.01 국내영업본팀 팀장 2003,05.01 국내영업팀 영업소장

안녕하십니까 SIMPAC 가족 여러분

올해부로 (주)SIMPAC 부사장 임무를 맡게 된 이동환입니다. 직책의 무게만큼이나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주)SIMPAC은 생존을 위한 또 다른 도약을 강요받고 있는 현 실입니다. 회사는 이에 대처하고자 독일법인의 출발과 성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 멕시코, 터키법인 설립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립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SIMPAC가족 여러분 이와 같은 필연적인 도전과 변화는 결연한 의지와 자발적인 통찰만이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요, 저자신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SIMPAC인 모두가 우리 SIMPAC이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수준의 경쟁력있는 글로벌 서플라이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심웅섭 전무이사

現 2017.01.01 전무이사 부문장(경영지원,구매,서비스) 2016.12.01 상무이사 부문장(경영지원,구매,서비스 부문) 2016.01.01 상무이사 부문장(경영지원,외주관리)

안녕하십니까 SIMPAC그룹 임직원 여러분.

(주)SIMPAC의 경영지원, 구매, 서비스 부문장 심웅섭 전무이 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비단 제 노력 뿐만 아니라, 저를 신뢰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회장님 이하 모든 SIMPAC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경영지원, 구매, 서비스 각 부문의 혁신을 도모하여 우리 회사가 임직원들은 물론 고객들 에게도 사랑받고 믿음직스러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 로 견마지로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요즈음 회사 안팎으로, 또 나라 안팎으로 힘든 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한층 더 성숙한 SIMPAC인이 되도 록 합시다. SIMPAC 화이팅!!



#### 부사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원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위치인 부사장님 자리까지 승진하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항상 솔선수범하시고 직원들을 잘 챙겨주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승진 축하드리며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영업팀 남민국 사원

####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때로는 강한 카리스마로, 때로는 온화한 리더십으로 저희 직원들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사장님을 본받아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영업팀장 남진환 부장

####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시는 부사장님의 모습은 항상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또한 이런 모범적인 선배를 항상 지켜보고 인정함에 어떤 선배가 되어야 할지 길을 찾은 듯합니다. 국내영업팀 내 영업후배로서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내영업팀 강원상 대리



#### 전무님! 승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과 영광 기원합니다.

전무님 경영지원부문 고기, 회 다 좋아합니다. ^0^ 경영지원팀 이혜정 사원

#### 전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칫 경직되고 딱딱해질 수 있는 직장생활인데 위트 넘치는 격려로 이따금씩 저희의 긴장을 풀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부문과 회사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파이팅!!

경영지원팀 김선일 사원

#### 심웅섭전무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울 전무님 짱)

앞으로도 지금처럼 구매파트를 잘 이끌어주세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다시 한 번 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외주관리1팀 이의진사원

#### 전무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 오시고 업무하시는 모습 보면서 말은 안했어도 속으로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도 입을 모아 말하는 부분이지만 센스있으신 옷차림 만큼이나 항상 존중으로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감탄을 자아내는 심전무님으로 계셔주세요, 그럼 SIMPAC 가족들과 함께 항상 더 나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영지원팀 조수진 사원





#### 한일남 전무이사

現 2017,01,01 전무이사 부문장(생산,R&D부문),전기설계팀장 2016,01,01 상무이사 부문장(생산/서비스,R&D) 2014,01,01 상무이사 생산부문 부문장 2012,01,01 상무이사 Metalloy 1공장 공장장 2007,05,01 이사 ENG 검단사업본부장 2007,02,08 이사대우 천진법인 법인장

직장생활 29년차, SIMPAC에서의 생활 29년차, 첫 직장에서 많은시간을 보내고 현재의 위치까지 오게 됐습니다. 좋은 선배들과 잘 따라준 후배들과의 co-work, 믿음, 신뢰 등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 높은 자리까지 오게됨은 한 개인의 능력 만으로는 불가능한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후배들에게 어떤 선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히 제가 직장생활에 롤모델이 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후배들의 롤모델이 될수 있도록 힘차게 해나갑시다.



#### 한일남 전무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길 비랍니다. 진급 턱은 한번 쏘셔야죠~기대하고 있겠습니다. ^O^ 익명을 요구한 R&D 모 과장

#### 전무님을 위해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한**: 한 가지보다는 열 가지를 봐야 하는 자리에서도 **일**: 일일이 우리 모두를 내려다 보고 보듬어 주시는 한일남 전무님

**남**: 남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생산 팀을 만들어 갈 테니 전무님은 더 높은 곳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생산팀 박결 사원

####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전무님과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어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어요 전기설계팀 김영진 차장

한:일남전무님은

일:등

남:자 진:급을

급 : 나 축하드립니다.

전기설계팀 지광희 대리

#### 진급을 명 받으셨습니까?

맛있는 회식을 명 받겠습니다. 전무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기설계팀 이창원 사원



#### 김대우 이사대우

SIMPAC메탈로이



現 2017.01.01 이사대우 2공장 공장장 (화학사업부) 2016.01.01 2공장 공장장 취임 2013.02.01 ROLL영업팀 팀장 겸임 2006.12.15 ROLL생산팀 팀장 승진 1995.09.26 당사 ROLL생산팀 입사

고객이 희망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 우리의 미래고 행복입니다, SIMPAC그룹 내에서 규모는 작지만 중요한 사업부, 고객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부로서 모든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할수 있는 사업부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 선배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입사 후 선임으로, 팀장으로, 공장장으로 13년 넘게 함께 일하고 있는 후배의 입장에서는 임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직원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우선 및 정확한 납기에 대한 강한 집념을 비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화학사업부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ROLL생산팀 김윤성 팀장

#### (주)SIMPAC



#### 유재희 사원 경영지원팀(수습)

입사 때 제가 했었던 다짐은 조금씩이지만 발전하는 자세를 지켜나가자는 것입니다. 매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필요한 공부와 업무에 필요한 지식함양에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긴 회사생활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 **박종수 사원** 경영지원팀(수습)

신입사원으로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는 각오를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신병민 사원 경영지원팀(수습)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말자.'라고 항상 다짐해 왔습니다. 저를 믿고 채용해주신 SIMPAC에 믿음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신입사원이지만 매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짐을 잊지 않겠습니다.



#### 조광희 사원 경영지원팀(수습)

신: 신입시원이 되었습니다. 입: '입사 후 주어진 시간을 이용해 업무 능력을 튼튼하게 키워나가겠다.' 다짐했습니다. 사: 사방으로 노력하고 성장하여 원: 원가절감! 이익창출! 기술UP! 하는 SIMPAC人이 되겠습니다.



#### **주정현 사원** 경영지원팀(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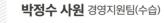
"편안함과 성장은 절대 공존하지 않는다. 기회가 오면 그냥 잡아라" IBM CEO 버지니아 로메티의 이 말은 입사를 앞두고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전공이나 커리어와는 다른 회사에 입사하며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노력하겠습니다.



51.

#### 정기웅 사원 경영지원팀(수습)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시원으로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노력을 가슴에 새기고 생활하겠습니다. 업무 중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힘든 부분은 끈기와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처음 각오했던 것처럼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처음과 끝이 같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김용석 사원** 경영지원팀(수습)

처음은 모두 흡수한다는 자세로 배워 나갈 것이며 다음은 모두 뱉어낼 수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자세로 SIMPAC의 핵심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황두현 사원 경영지원팀(수습)

혼자 가면 빠르게 함꼐 가면 멀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닌 SIMPAC인으로써 동료들과는 믿음으로 저 자신으로서는 애시심을 갖고 전진하겠습니다.

#### **안민혁 사원** 경영지원팀(수습)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어떠한 일도 포기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레스 구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기 파트에서 일하는 만큼 글로벌화 되어가는 SIMPAC에서 핵심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사초기 계획했던 자격증 공부도 꾸준히 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회사에 보답하겠습니다.



#### 강영찬 사원 경영지원팀(수습)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최고가 되는 것 또한 좋은 것이지만 최선을 최고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고가 되기위함이 아닌 최선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훈 사원 경영지원팀(수습)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지는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 빨리 회사와 선배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SIMPAC인더스트리

#### **김태석 사원** 생산팀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헌 사원 설계팀

고객사에게 인정받고 신뢰감을 주는 전문인이 되겠습니다.



#### SIMPAC메탈로이

#### **윤철욱 과장** 당진공장 생산팀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언제나 쉽 지 않지만 모두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응에 성공한 만큼 업무에서 도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최선호 사원 당진공장 설비반

링컨 대통령은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저 또한 성급하게 판단하고 뒤늦게 후회하기보다 제대로 된 한걸음 한걸음의 전진을 통해 왼벽한 일처리로 회사에 일익을 담당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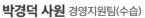
#### **엄동현 사원** 기획재무팀

2016년 인도 첸나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시절 공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프레스에서 'SIMPAC'이라는 브랜드를 보게 되었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기업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회사가 자 랑 할 수 있는 당찬 구성원이 되어 SIMPAC의 이 름을 더욱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사원** 당진공장 전기로반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 신입시원이지만, 항상 배울 수 있는 준비된 자세로근무하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 SIMPAC홀딩스 ENG

#### 김유림 사원 ENG 생산관리팀

안녕하십니까. ENG생산관리팀 김유림 사원입니다. 아직은 이 인사말이 제 것이 아닌듯 어색합니다. 많이 서툴고 실수 투성이인 막내사원이지만 신입사원인만큼 모든 배우려는 자세로 업무와 팀에 빨리 융화되어 도움이 되는 구성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제가 맡은 업무에서만큼은 확실한 수행능력을 키워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왔습니다 | SIMPAC인이 전하는 마음

**52.** 2017 NEW YEAR

## 편지왔습니다

	SIMPAC홀딩스 경영지원실 이웅기 사우가 전하는 편지
	SIMPAC홀딩스 경영지원실 지승연 대리님께
	지승연 대리님과의 인연은 2014년 제가 입사한 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력으로 SIMPAC홀딩스에
	오게 되었고, 지승연 대리님은 통합구매를 위한 구매팀으로 SIMPAC메탈로이에서 소속을 SIMPAC홀딩스로
	옮기게 되셨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인연은 지승연 대리님이 경영지원실로 와서 회계업무를 맡아 하시게
	되면서 더 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SIMPAC이라는 한 토양에서 자라고 있으신 대리님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또한, 구매업무를 하
	다가 경영지원쪽으로 자리를 옮기시어 경영지원의 업무를 하면서도 잘 헤쳐나가고 계신걸 보면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승연 대리님은 기념일마다 자그마한 쪽지를 써주시며 챙겨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차가 쌓여 중간
	관리직급인데도 이렇게 직원들 한명 한명 챙겨주시는 모습에 저는 막내 팀원으로 항상 감동을 받으며, 계속
	해서 배워나기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승연 대리님 앞으로도 막내인 저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그 동안 대리님이 저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에 보답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쓰시면서 항상 저를 더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항상 감
	사드립니다. 대리님!!!
THE	
MEINE	p.s 지승연 대리님의 휴대폰이 아이폰4S에서 갤럭시6엣지로 변신이 되실 때까지 옆에서 지켜본바 저희는
TCHARGE	휴대폰의 배터리를 항시 풀로 충전하고 있어야 하므로 대리님의 휴대폰을 위해 무선충전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P.P.S.	. 12
	SIMPAC홀딩스 경영지원실 이웅기 드림

53. SIMPAC STORY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공상우 사우가 전하는 편지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이수영 과장님께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우입니다.
언제나 고된 업무에 힘이 드시죠? 작년에 이어 올해 유난히 더 바쁘시고 고단해 보이셔서 최대한 짐을 덜어드
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 노력과 실력이 그 마음에 모자라 또 과장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을 기다려야
할 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이 참 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참된 조언을 해 주시고, "네가 이걸 스스로 다 하면 본인은 무엇을 하냐"며 무심
한 듯 건네는 말씀에 참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이 됩니다. 또 공과계통을 공부하고 설계 일을 하는 직업의 특성
상, 무뚝뚝하고 남초 중심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자주 웃어주시고 특별한 날이면 팀원들에게 하나하나 문자까
지 보내주시는 노력에 설계팀이 한층 부드러워짐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저도 하루빨리 배우고 배운 것을 실행하여 과장님과 같이 설계팀에 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제가 직접 전달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의 모든 사원, 대리님들
의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편지는 3월에 사보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읽으시는 동안
한 번이라도 웃으시면 이 편지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웃음을 선물할 그 날을 기대합니다.
p.s 과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달 드립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공상우 드림

54.

## 사진으로 말해요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 주제는 "**나의 시작"**입니다.



#### 두근두근~! SIMPAC에서의 새로운 시작

from (주)SIMPAC 경영지원팀 김선일 사원

2016년 하반기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SIMPAC 신입사원 입문과정 사진입니다. 설렘과 기대를 가득 안고 내딛는 첫걸음인 만큼 참가자는 물론 지켜보는 선배들의 마음도 감개무량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SIMPAC의 신입시원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 • 바리스타로서의 도전을 시작하다!

from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신재희 사원

새해가 되면서 취미로 무언가 배우고 싶은 마음에 문화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알게 되어 배우게 되었는데요. 초급과정이라 에스프레소와 카페라떼 밖에 못 배우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작은 활력소가 되었어요. 10주간의 수업이 끝나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수업도 도전해 보고 싶네요~!



#### 🤊 아들과의 첫 영화 나들이

from SIMPAC메탈로이 당진공장 생산지원팀 이준기 대리

2월 첫째 주 주말 5살 된 아들과 첫 영화 나들이를 하였습니다. 5살 된 아들은 영화관을 처음 방문하여 모든 것을 신기해 하였습니다. 영화는 '터닝메카드 블랙미러의 부활'로 애니메이션으로 아동용이라 저희가 보기엔 재미가 없었지만 영화에 빠져 보는 아들을 보니 흐뭇하였습니다. SIMPAC 직원들도 주말 가족들과 영화 한편 보시면서 삶의 여유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 • 아빠로서의 시작

from SIMPAC메탈로이 2공장 가공반 오준호

나의 첫 아이, 나를 처음으로 아빠라는 존재로 만들어준 아이. 우렁찬 울음소리로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나를 아빠로 만들어준 아이. 철도 없고, 많이 부족한 나를 어른스럽게 만들어준 아이. 벌써 일곱 살이 되었다. 내년에는 학부형으로 한 단계 더 올려 주겠구나. 아빠는 우리 민규 덕분에 많은 것들을 '처음'으로 해보는구나.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 🤊 연예인이다~! 연예인!!

from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 **손인성 사원** 

SIMPAC 창립 15주년 기념행사로 태국 방문 시 보게 된 연예인 정형돈씨와 김용만씨 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못 알아 봤지만 방송용 카메라들과 음향 장비들을 들고 다니는 스텝 분들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J방송국 파일럿 프로그램이라 작가님이 "시진 찍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고도 일단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후후후..--.-V) 나중에 안정환씨와 김성주씨 까지 여행일정이 겹쳐 몇 번 이나 마주쳤지만.. 자꾸 보게 되니 시진 찍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파일럿 방송 반응이 좋은지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어 첫 촬영을 실제로 본 저는 애청자로서 뿌듯했습니다. (ps... 방송으로 보니 사진에 나온 김용만씨 무릎상처는 해변가에서 게임 하다가 다친 상처로 추정됩니다.^^;;)





#### 국내 최초 합금철 개발, 생산의 60여년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1959년 설립 이후 종합합금철 메이커로서 대한민국 합금철 사업을 선도해 온 SIMPAC메탈로이와 SIMPAC메탈이 2016년 12월 29일 한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합금철 산업의 개척자 정신에 도전을 더하여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 Innovating Today to Design a Better Tomorrow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 분야의 발전에 일익이 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을 약속합니다

더욱 폭 넓은 합금철 포트폴리오를 통해 명실공히 세계적인 종합합금철 메이커로서의 성장을 약속하는 SIMPAC메탈로이를 기대해 주십시오.

